

쌍방향 소통을 위한 무용교수법의 원리 탐색*

오레지나**

목 차

Abstract	III. 쌍방향 소통을 위한 무용교수법의 원리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V. 결론
II. 쌍방향 소통을 위한 무용교수법의 개념 및 핵심가치	참고문헌

Abstract

Explor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dance teaching method for mutual communication

Oh, Regina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While mutual communication is an important discourse-topic of today, we still find the failure of communication in many aspects of society. In the effort toward mutual communication in society, education is not an exception. New principles for mutual communication in pedagogy overcoming the limits of traditional education need to be developed.

The major values in the educational principle for mutual communication are reverence for life, qualitative paradigm, and shinmyeong (creative ecstasy) of sympathy and rapport. Shinmyeong, the creative ecstasy, emanating from within and restoring true self in one, is the motor for self-leading in education. After restoring the value of respect for humanity, the culture of shinmyeong in which humans respect each other and sympathize with each other should be built.

Based on these major values, principles of the dance teaching method for mutual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부교수

논문투고일: 2014. 4. 20. 심사일: 2014. 5. 20. 게재확정일: 2014. 6. 9.

communication include openness (from the closed to the open), horizontality (from hierarchy to equality), communality (from the individual to the communal), and experience (from knowledge to creative experience).

key words: 무용교수법, 쌍방향 소통,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 교수법의 원리

주요어: dance teaching method, mutual communication, teaching method for mutual communication, principles of teaching method

I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통의 의미는 막힘없이 통한다는 뜻이다. 불통은 어딘가 막혀있다는 것이다. 소통이 가장 큰 화두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는 소통과 불통 이나를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과 각성 그리고 노력은 교육현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아닌 소통으로, 일방형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시점은 비표상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엄밀한 구상성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적인 현실로부터 고도의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논리에 이르기까지 비표상은 이미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필연적인 작동원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절대이성의 동일성, 즉 표상의 인식토대위에 성립되었던 서구 사유사의 허구성이 폭로되면서, 비표상의 논리가 존재세계의 실재에 보다 가까이 있음을 현대 사회에서는 명확히 인식해 가고 있는 것이다.

표상적이고 이분법적인 플라톤주의를 비판하는 들뢰즈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이분법적 사유가 아닌 다양한 관계들이 리좀(rhizome)적이고 다중적인 평면적 관계를 갖는 비표상적인 생태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조한 외, 2010:132). 이러한 비표상적인 구조는 리좀, 다양체(multiplicities), 잠재태(virtual)등 다양한 개념(Deleuze & Guattari, 1994:118)들로 설명될 수 있다. 리좀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수직형 뿌리를 중심으로 위계질서가 있는 나무뿌리와 달리 중심 뿌리가 없이 수평으로 퍼지는 수많은 뿌리로 구성된다. 이러한 수평적 구조는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일방적 소통을 쌍방향 소통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쌍방향 소통에 대한 노력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

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시화 되고 가속화 되고 있다. 예전에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통한 일방적인 소통만 가능했다면 지금은 SNS 등을 통하여 대중과 함께 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쌍방향 소통 문화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육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능 그리고 사회를 유지 및 발전, 변화시키는 기능, 문화를 내면화 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본질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가치론적 접근과 방법론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을 반영한 가치론적 접근은 교수방법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쌍방향 소통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과 전통적인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치론적 접근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위한 무용교수법의 원리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쌍방향이란 일방이 아니라는 뜻이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또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관계의 형성은 각 개인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습자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각각의 차이와 각 존재의 생명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개개인에 대한 존중, 존중을 통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교감과 공감의 신명이 쌍방향 소통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II . 쌍방향 소통을 위한 무용교수법의 개념 및 핵심 가치

1. 쌍방향 소통을 위한 무용교수법의 개념

교육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지식, 태도, 행동 등을 사회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배우고 익히며 개발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여기서 체계적(systemic)이란 그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신동의 3명, 2012:14). 교육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

는 교수자, 학습자, 교육과정,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12월 18일 일부 개정 고시한 2009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교수자와 학습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을 완성해 간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모두 교육과정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호작용하게 되며 물리적, 심리적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은 촉진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교수자를 중심으로 일방적이고 수직적이며 폐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와 반성이 지속되어왔다. 특히 무용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는 학습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무용교육에서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 그리고 교수방법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무용교수란 무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과정으로 기술적 숙달, 예술적 창의성, 문화적 감각을 가르치는 것(김화숙 외, 2013:254)이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활동이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법은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무용교육에서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은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참여를 끌어내는 중요한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가치위에 서로를 존중하고 교감하는 신명의 문화를 형성하는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기반으로 학습자를 이해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신바람나는 학습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에서 생명과 존재에 대한 가치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또한 내재적 발전을 통해 자아를 회복시키는 창조적 신바람인 신명은 교육을 자기주도적으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2. 쌍방향 소통을 위한 무용교수법의 핵심가치

1) 생명의 가치와 질적 패러다임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은 학습자의 존재가치의 재발견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 존재가치의 재발견은 생명 가치의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 생명은 눈에 보이는 ‘드러난

질서'이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질서'로서의 전체적 생성·유출·변화 과정이다. 생명은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질서'로서의 생명은 반드시 눈에 보이고, 고정되고, 접촉되고, 들리는 '드러난 질서'로 물질화 하되, 그 물질화된 형식 안에 한 순간도 그대로 머물지 않고 변화(김지하, 1997:39)함을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개체성, 독특성, 다양성, 생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연과 우주를 함축하고 있는 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소신이나 특성, 개성 보다는 사회적인 가치가 우세한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더 잘살기 위해서 존재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양적 패러다임 속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는 지적 능력과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숙련의 일면과 지혜와 영성과 윤리의 다른 면 사이의 두드러진 불균형을 초래했다. 과학적 방법과 합리적, 분석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심각한 반생태적 태도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적 태도 및 가치관은 양(陽) 즉 인간성 중 자기 주장적 성격인 남성 요소를 항상 복돋워 주고 보상해 준 반면, 음(陰) 즉 여성적 또는 직관적인 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성공을 위한 양적 표상이 되었고 지식의 주입과 생산은 경쟁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습자는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가 도달하려는 전환점은 무엇보다도 음과 양의 변동의 역전(逆轉)을 의미(Capra, 1982, 구윤서 외 역, 2009:59)하며, 양적 가치체계에서 질적 가치체계로의 전환(문순홍, 2006:52)을 뜻한다.

질적 가치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존재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가치위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에서 매우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2) 창조적 에너지 신명의 가치

신명은 생명의 일깨움이다. 진정한 신명은 자유와 존중이 인정될 때 느낄 수 있으며, 그러한 상태가 바로 나로 온전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신명은 내재적 발현을 통한 자아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당면한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자아를 회복시키며, 창조적인 생성에너지로서 신바람을 일으키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한다.

교육에서 학습은 내재적 발현을 통한 자아발견의 생생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양적 가치에 입각한 교육목표와 교육환경은 학습자들을 무한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며 앞으로만 나아가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자아가 손상되고 당면한 문제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왕따나 폭력 등과 같은 반사회적 방법을 선택하거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학습에 신명이 없기 때문이다.

신명은 자연과의 합일, 내안의 '신성(神性)'의 일깨움을 통해 '나'를 초월하는 경험이며, 주관의 시간성을 통해 삶을 관조하고 누릴 수 있게 한다. 한(恨)이란 자아의 손상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이 풀려서 발생하게 되는 신명이란 손상된 자아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진정한 신명은 생명을 소중히 하고 살려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살림의 마음은 삶의 에너지로서 신바람을 일으키며,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며, 공동체를 통해 증폭된다(오레지나, 2009:25-27).

신명은 민주적인 생활 표현의 양식을 생성시키는 예술적 원천임과 동시에 그 생활 표현의 양식을 생활이나 사회에 다시 되돌려 놓아 공동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면서 보다 나은 삶으로 발전시키는 기능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신명이 난다는 것은 '깨어 있고 밝은 마음가짐이 힘차게 움직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천지만물과 사람의 마음 양쪽에 다 있는 창조적인 '생성의 의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명은 낙천적인 뒤흔들음으로 삶에 응어리진 한과 고통을 풀어 해쳐 삶에 활력을 준다(오레지나, 2009:21-22).

이제 신명은 교육의 핵심개념으로 이해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신명은 각 개인의 한(恨), 즉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 체험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한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몰입을 통해 그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투쟁과 난장을 통해 정서적, 의식적인 변화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 냈을 때 가능해 진다. 신명은 교감과 공감을 통해 체험될 수 있으며 부정적 정서의 배설체계로서 자아를 회복하고 삶을 정화시키는 생명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교육에서 풀어야 하는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쌍방향 소통은 이러한 신명이 기초가 되어야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III. 쌍방향 소통을 위한 무용교수법의 원리

1. 개방성 : 폐쇄에서 개방으로

공동체 속에서 관계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부분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으로부터 독특한 구조가 생기는 전체이다. 시스템의 활동은 많은 구성요

소 간에 동시적이며 서로 의존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내포한다. 시스템 속의 모든 변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가지가 경직되면 다른 것에 영향을 주어서 전 시스템에 퍼지게 된다.

수업에서의 사회적인 관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이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는 교육의 효과 검증의 장인 동시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의 근원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조화로운 인간을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예술은 자연과 평행한 조화를 이상으로 한다. 예술과 교육은 두 분야 모두 ‘가로지르기적(transversal)’인 사고의 체계를 요구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사람보다는 지식에, 그리고 방법보다는 결과에, 감정보다는 확신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한혜리, 2011:26)이다. 그러나 창의교육의 필요성에 근거한 교육내용 및 교육장소의 확장 등이 정책적으로 모색되면서 교육현장도 이에 응답할 의무가 생겼다. 21세기를 특징짓는 정보화와 세계화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영향을 통해 사회는 점점 복잡, 다양하게 되어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감자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실천력이 필요하다(오레지나, 2013:7).

쌍방향 소통을 위한 수업은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가로지르기적 사고에 기반한다. 이는 폐쇄적인 학습환경과 가치의 개방을 의미한다. 개방적인 사고와 방법론적 접근은 지속적인 교환과 통합을 통해 수업에서의 모든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에 기여하게 되며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

2. 수평성 : 수직에서 수평으로

모든 유기체는 통합된 전체이며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이 모든 자연적 시스템은 부분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으로부터 독특한 구조가 생기는 전체이다. 시스템의 활동은 많은 구성요소 간에 동시적이며 서로 의존하는 상호 작용인 거래(transaction)라고 알려진 과정을 내포한다(Capra, 1982, 구윤서 외 역, 2009:337). 시스템 속의 모든 변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가지가 경직되면 다른 것에 영향을 주어서 유연성의 상실은 전 시스템에 퍼지게 된다.

사회적인 관계와 수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는 구성원의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의 관계로 형성된다. 이러한 가치는 조직의 top-down 위계질서를 평행적 관계의 네트워크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에서 협력과 소통은 중요한 기반이

된다. 사회적 자본(Putnam, 1996:215)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유형, 무형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행위자들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 교환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자산들은 시민적 참여, 사회적 자원, 그리고 신뢰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이정규, 2009:16). 수평적 의사소통은 평행적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유형, 무형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역량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수업에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면서 모든 기준들이 가변적인 것이 되고 주관화되게 되었으며 모든 활동이 삶의 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가치는 지식암기 능력이 아닌 지적, 관계적 역량이 되고 있다.

무용 수업에서 학생은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총체적 인격체로서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가이다(신은경, 2012:38).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수평적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수업을 통한 유형, 무형의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되어야 하며 구체화되어야 한다.

3. 공동체성 : 개인에서 공동체로

생명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원칙, 즉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같은 정도로 소중하다는 대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이는 우리의 느낌 속에 각인된 인간의 생명가치의 차별성과 합리적 사고가 말해주는 동등성 사이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겨내려는 의식적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반영하는 사회적 장치가 바로 ‘윤리’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조용개, 2007:81). 각각의 개체가 곧 통합된 전체라는 시스템적 견해는 우리 전통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사회를 지속시키는 윤리가 바로 공동체의식이며 이러한 공동체의식, 즉 생명에 대한 존중과 나눔이 바로 공동체 삶인 것이다.

공자사상의 핵심어 인(仁)이란 곧 ‘함께·더불어 하기’다. ‘함께·더불어 하기’의 원동력은 ‘그대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의 전환에서 비롯된다(이권우, 2012:229). 지금의 시대의식은 관계론적, 생태론적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다.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관계 계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스템적 사고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 관계망은 개인과 공동체의 실존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단초이다. 그러므로 문화를 공유하고 관계를 계승한다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신념으로 다듬어진 커뮤니티의 실존적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다(황정옥, 2013:97).

각각의 개체가 곧 통합된 하나임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어울림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의식과 공동체 삶은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이며 과제인 것이다.

4. 체험성 : 전문·기능에서 창의·체험으로

무용교육의 과제는 무용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것이다. 무용이 시대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회 참여의 목적과 관계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무용이 사회활동 중 한 영역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래된 역사의 예술교육은 전문·기능교육에서 교양·지식교육으로 그리고 창의·체험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김화숙 외, 2013:17-18).

외부의 사물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식은 주관적으로 경험한 현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험은 의식이 질서를 찾아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확신하게 해주며(한혜리, 2014:65-66),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은 구체적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주로 성취 그 자체에서 나온다(Bègue L, 2011, 이세진 역, 2013:132). Rifkin, J.(2000)은 21세기 문명을 접속의 시대(the Age of Access)라는 화두로 정리한다. 접속은 문화생산이 지배하는 시대, 마지막 자본주의 시대를 관통하는 원리로 문화적 자원과 체험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다(송해룡 외, 2006:29). 체험은 특정한 인격이 경험으로 얻는 지식, 능력, 기술 같은 것을 강조한다. 존재는 체험과 관계하며 체험의 연속은 삶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은 ‘즉시적인 만족’을 위해 행해지는 것 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험이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지식, 능력, 기술과 같은 것을 성취하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개인의 취향적인 문제에서 공동체가 함께 지향하여야 할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실천의 동반을 전제한다. 이것이 바로 쌍방향 소통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기반의 쌍방향 소통에 대한 논의는 근대에 대한 고찰의 과정이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구체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의 원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쌍방향 소통을 위한 무용교수법의 원리

NO	핵심개념	원리
1	개방성	폐쇄에서 개방으로
2	수평성	수직에서 수평으로
3	공동체성	개인에서 공동체로
4	체험성	전문·기능에서 창의·체험으로

IV. 결론

오늘날 우리는 소통이 가장 큰 화두가 되었지만, 아직도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는 소통과 불통이냐를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과 각성 그리고 노력은 교육현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의 원리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의 핵심가치와 원리를 살펴보았다.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에서 핵심가치는 생명의 가치와 질적 패러다임, 교감과 공감의 신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과 존재에 대한 가치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또한 내재적 발현을 통해 자아를 회복시키는 창조적 신바람인 신명은 교육을 자기주도적으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간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가치위에 서로를 존중하고 교감하는 신명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론적 접근을 근거로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방성이다. 쌍방향 소통을 위한 수업은 구성원의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의 관계로 형성된다. 개방적인 관계는 지속적인 교환을 통해 수업에서의 모든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수평성이다. 다양한 관계들이 다중적인 평면적 관계를 갖는 비표상적인 생태구조는 수직형 위계질서가 아닌 수평적 위계질서를 갖는다. 이러한 수평적 구조는 쌍방향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성이다. 각각의 개체가 곧 통합된 하나임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적 의식과 공동체 삶은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육에서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체험성이다. 삶의 지향성을 내포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체험을 전제한다. 따라서 교육은 체험을 통해 앞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은 철학적 변화에 입각한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교육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개인의 차원, 학습공동체적 차원,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적 차원,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교육환경과의 상호적 차원 등 네 층위에서 교수와 학습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교수법의 현장 적용 및 기존의 교수법과의 비교 연구 등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지하(1997), **생명과 자치**, 솔.
- 김화숙, 류분순, 신은경, 신정희, 임혜자, 오레지나, 한혜리(2013), **무용교육론**, 도서출판 한학문화.
- 문순홍(2006), **행태학의 담론**, 아르케.
- 송해룡, 김원제, 조항민(2006), **대한민국은 지금 체험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은경(2012), “스펙트럼 이론을 적용한 무용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3집 1호**, 23-39.
- 오레지나(2009), “한국무용교육에서 신명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0집 3호**, 19-30.
- _____ (2013), “대학무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방향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4집 2호**, 1-12.
- 이권우(2012), “여민(與民) 공동체의 이상”, **녹색평론 9-10월 126**.
- 이신동, 조형정, 장선영, 정종원(2012), **알기쉬운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양서원.
- 이정규(2009),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신뢰, 사회적 자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회, 인문사회과학연구 22**, 5-40.
- 조용개(2007), “환경윤리로서의 생태중심 생명가치관에 관한 논의”, **한국인문·사회과학아카데미 학술연구총서; 4**, 77-100, 부산:금정.
- 조한, 김덕재(2010), “들뢰즈 철학과 SANAA 건축의 비표상적인 생태적 사유 연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6 No.6**, 131-140.

- 한혜리(2011), “예술통합 무용교육 방법론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제2호**, 21-37.
- _____(2014), “커뮤니티 댄스에서 참여 무용의 복합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집 제1호**, 61-76.
- 황정옥(2013), “거주지 문화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댄스 기능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4집 제2호**, 85-99.
- Bègue, L.(2011), *Psychologie du bien et du mal*, 이세진(역, 2013),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부키.
- Capra, F.(1982), *The Turning point*, 구윤서, 이성범(역, 2009),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사.
- Deleuze, G. & Guattari, F.(1994), *What is Philosoph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Putnam, F.(1996),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The Free Press.
- Rifkin, J.(2000), *The age of access: the new culture of hypercapitalism, where all of life is a paid-for experience*, New York: J. P. Teacher/Putnam.